

◇ 特別論文 ◇ 나의 人生觀
人間哲學 序想【4】 人間다운 人間

朴致祐

-如何히 하여야 人間은 다시 人間될 수 잇을가?

내가 말하는 人間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人間다운 人間이다. 何故오 하면 非人間的인 人間은 非人間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갓 單純한 畵변에 지내지 못한 것일가?

나는 나의 이 結論의 理解를 促進시키기 爲하여 우선 나의 立場을 從來의 모-든 非人間的인 人間學으로부터 區別하련다. 非人間的인 人間學은 一言으로말하면 非人間인 立場에 涉으로써 人間을 될 수 잇는대로 非人間的인 存在로써 把握하려는 態度를 말한다.

나는 便宜上 이러한 非人間的 人間學을 「科學的 人間學」과 「道學者的 人間學」에 나누려한다.

첫재로 내가 말하는 人間은 數學에서 取扱되는 「人間」일수는 없다. 何故오하면 數學에서 取扱되는 人間은 人間이라기보다도 오히려 모르못트이기 때문이다. 人間은 거기서는 토끼(兎)나 모르못트로서만 取扱되기 때문이다.

이와同時에 내가 말하는 人間은 生理學的 人間도 아니다. 何故오 하면 生理學은 「人間」의 物理學이오. 化學에 지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元來 自然物을 對象삼어야될 物理化學이 偶然히 人間을 對象으로 取扱했음에 지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呼吸, 消化, □□등 生理現象은 全然 力, 酸素, 水素 등과 同一하게 物理化學的 方法下에서 探求되기 때문이다. 거기서는 人間性的 有無 등은 전연 문제 되지 않는다.

다음 나의 말하는 人間은 人間的인人間이므로 그것은 心理學的 人間일수도없다. 何故오하면 거기서는 故意로 人間성을 박탈함으로써 人間은 一枚의 카어모 그라프의우에 線과 기호로서 取扱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이다. 心理學者는 人間心理의 수학자다. 그러므로 그로서는 우리가 要求하는 人間다운人間

은 捕捉할수없는 것이다.

이리하여 내가 말하는 人間은 醫學的 人間, 生理學的 人間, 心理學的 人間도 될 수 없다. 이것들은 어느 것을 莫論하고 모두 人間다운 人間이 아니기 때문이다. 人間을 그의 人間性에 있어서 把握하지 못 하였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러한 人間學은 沒人間性的 人間이기 때문이다. 一般으로 科學的 人間學의 보편적 특징들은 그 方法이 자연과학적이란 點에 있다. 卽 人間을 價值的으로, 物體로서 因果律에 있어서만 考察한다는 點에 있다.

다음 그러면 道學者的 人間學이란 어떤 것을 말함인가? 道學者的 人間學은 科學的 人間學과는 전연 대척적 立場에 선다. 그것은 人間을 물체로서가 아니라 靈으로서-因果律에 있어서가 아니라, 自由律에 있어서 考察하려는 態度다. 이리 하므로서 人間을 批判없이 「價値」로서 卽 單純的인 存在로서 보려고 한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價値性은 가감없이 곧 보편성이기 때문이다)그러므로 그들은 人間에게 對하여 無條件으로 善을

行할것을 強要한다. 그들은 善이무엇인지는 가르키나, 그러나 何故로 善이 善인가는 가르키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何故로 人間은 惡을 아니고 善을 行하여야만되는가를 그들은 說明하지 못한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傳統은 無條件的으로 合道益的인 까닭에 人間의 行함 最大의善은 다못 이것에 對한 絶對的 服從 이것이 있을 뿐이다. 傳統에 對한 노예됨을 強要한다는 이 點에 道學者的 人間學의 秘密이 숨어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善과 人間性은 氷炭不容인 斷定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見解는 이러한 道學者的 人間觀과는 區別되어야만된다. 人間은

動物도 아닐 뿐만 아니라 實로 天使도 아니며, 物質만도 아니며 靈만도 아닌 것은 勿論이다. 그러나 何故로 人間은 天使됨을 應해야만되고 靈的임을 應해야만 되는가? 우리는 선악 等の 道德的 價値存在를 소호도 否定하는것은 아니다. 다만 이보다도 먼저 우리는 善을 善되게하며 善을 觀되게하는 根源을 먼저 알아야만 될 것이란 말이다.

傳統이 傳統이므로 善인것도 아닌 동시에 새것이 새것이기 때문에 善인것도 아니다. 우리는 只今이야말로 善惡의 새로운 規準을 確立하여야만될 巨大한 轉換期에 直面하고 있다. 우리는 只今이야말로 何故로 善이 善이며 惡이惡인가를 檢討하여야만될 必要에 迫到된 것이다.